

濟州道 方言 “가쟁이” 語放

金 洪 植

目 次

- | | |
|-----------------|----------------|
| I. 序 言 | IV. 二次接尾辭 /-j/ |
| II. 語根의 抽出과 考察 | V. 結 語 |
| III. 一次接尾辭 /-ㄷ/ | |

I. 序 言

韓國語는 膠着語이고 接頭語 보다는 接尾語의 使用이 더 自然스러운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더 發達한 言語에 屬한다.

또 接尾辭는 한 語彙가 出發點에서 멀리 멀어질수록 加重해서 附加해 간다. 그러므로 接尾辭는 한 語彙를 方言化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接尾辭의 接尾形態에 따른 方言化의 例를 濟州島方言 (以下 “本島方言”이라 함)에서 몇가지 例示하여 본다.

〈標準語〉	〈濟州島方言〉
이마(額)	이뎡이
	입뎡이
머리(頭)	대뎡이
	대강이
	대뎡생이
	대강생이
목(喉)	목애기
	목압지
턱(頤)	턱가리
복숭아(桃)	복숭개
꽃(花)	고장
도미(鱒)	둥치, 둠바리
바늘(針)	바눔

以上 보는 바와 같이 한 語彙의 方言의 特色을 表示하는 데는 接尾辭의 接尾作用의 役割이 큰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卽 接尾辭는 한 語彙를 方言化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語는 接頭辭보다도 接尾辭가 보다 더 發達한 言語에 屬할 것이며, 特히 本島方言이 陸地部의 方言과 激甚한 差異를 나타내는 要因의 하나는 分裂되기 以前의 言語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音韻이나 語彙面에서도 그러하려니와, 特히 派生接尾辭等 形態論的 領域에서는 더욱 顯著한 特色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接尾辭의 調査 研究가 보다 더 重要하다 하겠다.

그리고 接辭 가운데서도 接頭辭는 그 數도 많지 않을뿐 아니라 體系가 簡單해서 變 어려움이 없지만, 接尾辭는 그 數가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變種이 多様하여 體系的인 研究가 可能한 分野라고 생각된다.

韓國語의 造語에 있어 用言 語幹에 接尾辭가 붙어 名詞를 派生함은 勿論 또 名詞에 接尾辭가 붙는 傾向이 많음은 周知의 事實이다.¹⁾ 本稿에서는 後者 즉 名詞 語幹에 다시 接尾辭를 添尾시켜 새로운 派生名詞를 形成하는 方言 現象中の 하나로 本島方言 語彙 “가쟁이(枝)” 語에 對해서 그 形態를 分析하여 語根을 抽出 考察하고, 그 方言 語形이 보여주는 共時的 事實이 國語史의 으로 볼 때 어떠한 意義를 갖는 것인가를 窺視하여 보는 卽 文獻資料上的 言語素材의 問題點을 方

1) G.J. Ramstedt,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pp. 174-183.

言 語彙를 통해서 糾明하여 보고, 또 接尾辭의 接尾形態와 그 類型을 抽出하여 내고 그 機能과 特徵을 살피 보고자 하거니와, 共時的 事實이 언제나 通時的 變化過程을 反映한다고만은 認定할 수 없으나, 적어도 社會的 空間에서나 地域的 空間에서 일어나는 變異들은 時間的 次元에서 일어났던 變異의 結果物들임에 틀림이 없기에, 方言資料에서 보여 주는 諸 現象은 通時的 變異過程을 反映하여 주는 한 歷史的 所産이라 할 것이니, 文獻資料上の 言語素材의 問題點들을 現代 方言의 共時的 狀況속에서 많은 暗示와 糾明됨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며, 또한 方言資料上에 있어서의 言語의 共時的 狀況과 問題點은 歷史的 變化로부터 이끌어 내 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小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方言語彙 “가쟁이” 語의 形態分析을 통하여 몇가지 管見을 들어 보고자 한다.

II. 語根의 抽出과 考察

이 小稿에서 論하려는 對象 語彙 “가쟁이”는 共通語 “가지” (枝)에 대한 本島方言 語形으로 原語民間에는 아직도 共時態로서 實現되기는 하나 그 頻度는 微微한 편이다.

다음에 이 “kadzeŋi” 語의 形態分析을 하여 보면, 이 語形은 다음과 같이 分析이 可能한 것이다.

Kac + eg + i

이것은 即 “kadzi”의 語根 {Kac}에다 派生 接尾辭 {-eg}과 {-i}가 二重으로 接尾된 複合形態라고 할 것이다.

本島方言의 造語法에 있어서 이와 같은 構成은 接尾辭를 붙여 그 語形을 長形化하는 現象의 하나로 이것은 다만 本島方言에만 나타나는 現象이 아니라, 現在 우리 國語 語彙에는 이 現象에 依해 形成된 것이 적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本島方言에 있어서의 이 現象이 他方言에 比해서 顯著함이 그 特色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그 一般化한 것은 除外하고 本島方言의 特色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語彙에서 이 現象을 찾아 보고 여기 한 類型을 들어 본다.

가지 (枝)	kadzeŋi
이마 (額)	imeŋi
꼬리 (尾)	kkolkeŋi
호미 (鋤)	kuŋgeŋi
오리 (鴨)	olŋeŋi
망배	meŋgeŋi

누렁지	nureŋi
고양이 (貓)	koŋaŋi
지내	tʃinsŋi
막대	maktesŋi
조개 (貝)	tʃogaŋi
보지 (女根)	bodesŋi
쫓 (男根)	tʃodsŋi
뚜정 (薑)	tukhesŋi
벌레 (虫)	boreŋi

그러면 여기서 叙述하려는 対象 語彙 “가쟁이” (枝)의 形態分析을 함에 있어 먼저 그 語根을 抽出하여 내고 共通語와 또 15世紀 文獻資料와를 比較 考察하여 그 相互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語根 (root)이란 形式形態素인 接辭가 붙을 수 있는 實質形態素에 對하여 말함이 普通이나, 달리 基語 (base)라 부르기도 하고, 或時는 語幹 (stem)이라 하기도 한다.

語根은 어 以上 分析할 수 없는 最小의 意味單位이며, 모든 派生 및 屈折接尾辭를 除去한 後에 남는 語形成의 要素로서 歷史的인 觀點에 따라 理論的으로 抽出된 것이고, 基語는 語根과 大體로 같으나, 語根이 주로 言語史的인 分析이나 反省에 依하여 同一系統의 語族에 對한 比較研究를 밑받침으로 하여 抽出된 것임에 對하여, 基語는 實際의 具體的인 言語活動에 있어서 語形成의 基幹的인 것으로 意識되는 語形成의 要素를 뜻하는 것이다.²⁾

앞에서 이미 든 바와 같이 “Kadzeŋi”의 語根은 {Kac}이요, {-eŋ}과 {-i}는 各各 接尾辭로 붙 것이다.

그러나 現代 共通語로서는 “枝”를 뜻하는 語形은 “가지”로서 實際의 具體的인 言語活動에 있어서 語形成의 基幹的인 것으로 意識되고 있는 語形成의 要素 即 基語로 意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語를 歷史的인 觀點에서 國語史的인 分析이나 反省에 依하여 이 語辭의 語根을 考察하여 볼 때 이 “가지”語形이 元來부터 그 語根이었다고만은 斷定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가지”語辭의 語源的 語根은 무엇이며 또 本島方言 “가쟁이”語에서 抽出해 낼 수 있는 이 “갓”語形은 共時的,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어떠한 意味를 가지는 것일까?

方言에서의 特殊한 言語現象들은 各其 그들 自體의 歷史性을 갖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中世國語 또는 그 以前의 時期에도 現在와 같은 수 많은 方言의 分布가 存在했었을 것이다.

2) 「國語國文學事典」, (서울大學校 東西文化研究所編 新丘文化社, 1974), PP. 401-403.

한 言語의 共時的 狀態가 어느 程度 그 言語歷史의 部分的인 要約을 反映하고 있다면 現在의 어떤 A라는 方言의 共時的 文法을 理解하고 歷史的 變遷過程을 記述하려면 中央語와는 独立的인 中世와 近代段階의 方言 A'와 A"의 言語實態를 追跡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獲得할 수 있는 最高의 透明한 資料인 15世紀 文獻語로부터 所謂 基底形을 設定하여 A方言의 歷史的 發達과 共時的 現況을 조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時代段階上에 따른 方言資料의 欠乏과 우리들의 知識의 制約에서 나온 어디까지나 하나의 窮餘之策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 語根 “갓”의 究明에 있어서도 먼저 15世紀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해서 그 樣態를 追跡하여 그 關係를 살펴 보고 現代 標準語形 “가지”로의 分化 過程을 言語의 歷史的 變化의 結果로 把握하여 보려 한다.

먼저 文獻資料에서 찾아보면

- 1) 짐갓 가재 연즈니 < 龍歌 · 7 >
- 2) 나뭇 가지에 < 杜詩 · 15 · 4 >
- 3) 냇 가지에 < 杜詩 · 10 · 10 >
- 4) 가짓지 : 枝 < 訓蒙 · 下 · 4 >

以上 文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지” 語辭는 文獻의 記錄을 따라 15世紀까지 追跡하여 올라 갈 수가 있으나 그 以前 即 15世紀 以前으로는 資料의 欠乏으로 더 遡及하여 올라 갈 수가 없다.

위 文例에서 2)3)4)에서는 그 語根을 “가지”로도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은 現代 共通語形과 同一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問題는 文例 1)에 있다. 1)의 “가재” 形은 “가지”(枝)의 處所格形이겠는데, 文例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지”의 處所格形은 “가지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가재”의 形態分析이 問題가 된다.

이 問題에 대해서 許雄教授는 “「가재」와 같은 變則形은, 筆者의 調査한 바로는, 여기 하나 뿐이니, 이것은 아마 「가지」의 그 以前 語形이 「갓」이었기 때문이나 아닐까 생각된다”³⁾ 고 하여 “가재” 語形을 “갓+에”로 分析하여 “갓”을 “가지” 語形보다 그 以前의 語形으로 推定하였다.

또 金亨奎博士는 이에 대해서 “/가재/는 /가지/에 方位토 /-에/가 합한 것”⁴⁾ 이라고 하여 그 語根形을 “가지”로 보았으며 劉昌淳教授는 “가지”(枝)의 語根은 造語法의 類型에 準하면 尙當 “갓+이”로 보고 語根 “갓”을 抽出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잘못으로, “가재”란

3) 許雄, 「龍飛御天歌」, (서울: 正音社, 1956), P.62.

4) 金亨奎, 「古歌韻註歌」, (서울: 一朝閣, 1953), P.35.

記錄은 決코 名詞 “갓”에 토“-애”가 連結한 것이 아니라, 名詞 “가지”에 토“-애”가 連結할 때, 名詞의 끝母音 “ㅣ”가 들어진 것이라 하고 語根을 “가지”로 보았다.⁵⁾

또 崔鶴根教授는 “「枝」를 指稱하는 말은 [ka-dzi]이다. 이 [ka-dzi]는 原形 [ki-] 或은 [ka-]에 [-adzi]形 縮小接尾辭를 後接하였다고 推想할 수도 있는 일이다.”⁶⁾라고 하여 “가지”의 語源의 語根에 [ki-] 或은 [ka-]形이 存在했었을 可能性을 推定하였다.

또 梁柱東博士는 “「母·枝·鶯」의 訓의 原形은 「엄·갓·꽃골」뿐이오 通訓 「어미·가지·꽃고리」는 그 主格形, 「어미·가재·꽃고리」는 그 持格 又は 方位格이다.”⁷⁾라고 하여 所謂 1尾名詞의 ‘ㅣ’가 實은 主格助詞이니, 換言하면 該名詞의 原形은 ‘ㅣ’를 除去한 部分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지’의 原形도 ‘갓’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世紀 文獻語 ‘가재’ 語辭에 있어서의 語根 抽出 問題와 關聯하여 以上 諸學者의 說을 들어 보았다. 여기서 위 諸學者의 說을 綜合 檢討하여 보면 大体로 ‘가재’ 語辭의 語根으로는 ‘갓’과 ‘가지’의 兩說로 集約됨을 알 수가 있다. 勿論 ‘枝’의 原形으로 [ki-] 或은 [ka-]形의 存在 可能性을 主張한 崔鶴根教授의 說도 있으나 現在 國語와 文獻資料를 通해서 볼 때 그 傍証資料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文獻語 ‘가재’의 形態分析에 있어서 그 基底形을 어떻게 設定하느냐가 問題된다.

앞에서 例擧한 文獻語에서 볼 때 ‘가재’, ‘가지에’는 共히 ‘가지’(枝)의 處所格形으로서 여기서 ‘가지에’는 名詞인 ‘가지’(枝)에 助詞 ‘에’가 結合된 形態로 分析된다. 그런데 問題는 ‘가재’ 語形에 있다. 即 여기서 이 語辭의 形態分析을 함에 있어 形態素 境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問題된다.

첫째로 名詞 ‘가지’에 處所格助詞 ‘-애’가 結合된 것이라고도 하나 앞에 例擧한 文獻語例 2)3)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지’의 處所格形은 ‘가지에’로 表記되고 있으니 이는 ‘가지+에>가지에’로 볼 것이다.

現代 國語에서는 處所格으로 ‘-에’ 하나만이 쓰이나 15世紀 當時에는 處所格은 母音調和에 따라 ‘애,에’ 그리고 ‘ㅣ’母音과 ‘ㅣ’母音으로 끝나는 二重母音 ‘애,에,의,위,의’ 등 아래서는 ‘에’로 나타났었다.

天下애 깎이 크샤더

<龜歌·10>

後에 두 줄기를 비츠너

<月歌·二·14>

5) 劉昌淳, 「語彙史研究」, (서울: 三文社, 1975), P.24.

6) 崔鶴根, 「國語方言學序論」, (서울: 精研社, 1959), P.276.

7) 梁柱東, 「古歌研究」, (서울: 博文出版社, 1954), P.250.

드리에 떠날 것을

<龜歌·87>

위 文獻語例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ㅣ’ 母音과 같은 中性母音下에서는 処所格助詞로 반드시 ‘에’ 를 使用하였으니 이는 ㅣ母音同化로 因함이다. 따라서 語根形이 ‘가지’ 일 것 같으면 그 処所格形은 반드시 ‘에’ 가 와야 할 것이나, ‘애’ 助詞를 取하였음은 그 語根을 ‘가지’ 形으로 볼 수 없는 理由가 될 것이다.

또 ‘가재’ 語辭는 名詞 ‘가지’ 에 処所格助詞 ‘애’ 가 連結될 때, 名詞의 끝 母音 ‘ㅣ’ 가 줄어진 것이라고도 하나 위에서 이미 言述한 바와 같이 名詞 ‘가지’ 에는 処所格助詞로서 ‘애’ 토는 올 수가 없으며, 오직 ‘에’ 토만이 올 수가 있다. 卽 ‘가지+에’ > 가지에’ 로 되며, 萬若 이 語形이 縮約될 境遇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語形이 ‘가재’ 로는 필지언정 ‘가재’ 로 될 수는 없기 까닭이다.

둘째로는 ‘枝’ 의 基底形을 ‘갓’ 으로 보고 여기에 処所格形 ‘애’ 가 結合된 것 卽 ‘갓+애’ > 가재’ 가 바로 이 ‘가재’ 語形이 아닌가 推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國語의 ‘가지’ 語辭는 根源의 으로 그 基底形은 單音節形인 ‘갓’ 이며, 여기에 {—이} 接尾辭가 接尾되어서 語幹伸長을 일으킨 것이며, 大概 ‘이’ 母音으로 끝나는 體言의 境遇 ‘이’ 를 除去한 나머지 語形이 그 體言의 原形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며, 所謂 ㅣ尾名詞의 ‘ㅣ’ 가 實은 主格形인 것 換言하면 該名詞의 基底形은 接尾辭 ‘이’ 를 除去한 部分임은 文獻的 事實로도 認知할 수가 있다.

두덤為縮餘, 남為獲, 至為龜, 그럭為雁, 낮為釣 <訓民正音解例>

‘枝’ 語의 15世紀 通稱은 앞에서 이미 든 바와 같이 ‘가지’ 이나 이것은 元來 主格形이요 그 原形은 ‘갓’ 문인데, 主格形인 이 ‘가지’ 가 慣用됨에 따라 名詞 自体로 固定化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것은 梁柱東博士⁸⁾도 말한 바와 같이 上代語의 根本的 特徵의 하나는 名詞와 助詞와의 有機的 密着, 換言하면 名詞 自体가 獨立하기 以前에 그 各 格形이 先在하였던 點이니, 名詞와 助詞와의 分離는 實로 近世的인 概念이요, 上古에선 兩者가 完全히 密着된 統一体였을 것이다.

以上 論한 바로서 ‘가재’ (枝) 의 語根은 造語法의 類型上으로나 15世紀의 表記法上으로 보아 ‘갓’ 으로 推定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 語辭는 15世紀 文獻上에서 ‘가지’ 로 나타남이 一般的이요 ‘갓’ 單獨形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오직 龜飛御天歌에서 ‘가재’ (갓+애) 와 같은 語形을 찾아 볼 수 있을뿐 다른 곳에서도 그 例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이를 確証할 수 있는 直接的인 傍証資料가 없음이 脆弱點이다.

또 15世紀 文獻上에서 ‘갓’, ‘가지’ 의 變形이 並立함은 根源的으로 볼 때 ‘가지’ 의 語

8) Ibid., P.249.

源의語根은 ‘갓’이나 여기에 接尾辭 ‘이’ (主格助詞)가 結合된 ‘갓’의 主格形이 名詞 自体로 固定化되어 形成된 語形이라고 볼 때, 時代的으로 ‘갓’形은 ‘가지’形보다 훨씬 앞선 것 즉 古形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 文獻上으로 볼 때도 ‘가재’의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는 竜飛御天歌와 ‘가지’形으로 나타나는 杜時諺解와는 時代的으로 差異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15世紀는 ‘갓’語形에서 ‘가지’語形으로 移行하는 한 過渡期로서 ‘갓’形과 ‘가지’의 雙形이 한때 並立하였으나 漸次 新形인 ‘가지’形이 優位性을 占하게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方言에서의 特殊한 言語現象들은 다 各其 그들 自体의 歷史性을 갖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여기 本島方言 ‘가쟁이’ 語辭 分析에서 抽出하여 낼 수 있는 語根 ‘갓’形도 言語變遷의 歷史性 속에서 把握될 것이기에 通時的 側面에서 ‘가지’ (枝) 語辭의 語根을 追跡하여 보았다.

前述한 文獻資料上的 考察에서 ‘가지’의 語源的 語根을 ‘갓’으로 推定은 하였으나 이를 傍証할 文獻上 資料가 貧弱하여 이를 確定짓기에는 아직도 未洽한 것이 問題點이다. 그런데 本島方言 語辭에서 抽出되는 ‘갓’形은 15世紀 文獻 語形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인즉 이것은 本島方言에는 分裂되기 以前의 15世紀 當時의 言語의 底層이 아직도 維持되고 있음을 示顯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本島가 如한 歷史的 地理的 特殊 條件으로 보아 能히 首肯이 가는 것이다.

이 方言의 事實은 文獻資料上的 問題點을 解明 補完하여 주는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니, 本島方言 ‘가쟁이’의 語根 ‘갓’은 現在는 自立性이 없는 것들이나, 語源的으로 볼 때는 自立性이 認定되는 語根 即 語源的 語根으로 15世紀 乃至 그 以前 時代에는 存在하였었을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Ⅲ. 一次 接尾辭 /-eŋ/

지금까지 ‘가쟁이’ 語辭를 分析 一次的으로 그 語根을 抽出 考察하여 보았다. 다음에는 이 語根에 接尾하는 接尾辭에 대해서 考察키로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가쟁이’ 語辭는 語根 ‘갓’에 接尾辭 ‘-앵이’가 接尾되어 第二次 語幹形成을 이룩한 것이겠는데 이 -eŋi는 다시 -eŋ과 i로 分析이 可能하리라고 본다. 即 語根 ‘갓’에 派生 接尾辭 eŋ과 i가 二重으로 接尾된 複合接尾辭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一次接尾辭인 ‘앵’부터 考察하여 본다. 여기서 接尾辭 ‘-eŋ’의 本質인 基本形은 ‘-ŋ’ 뿐이라고 보겠는데 이것은 即 「R+ŋ」의 한 造語方式으로 現代 韓國語 造語方式으로

서 널리 알려진 事實이며, 이 「R + ㅁ」의 造語方式에 對해서는 李崇寧博士⁹⁾가 일찍이 通時的, 共時的으로 廣範圍하게 다룬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事實은 現代 韓國語 뿐만 아니라 中世語에서도 나타나는 한 現象으로 造語方式에 있어서 한 두드러진 事實이다.

다음에 그 事例를 文獻에서 들어 본다.

- 길(柱) 길+옹>기둥>기둥
 구리 기둥(銅柱) <內訓序·4>
 기둥에 받들기 스티라 <杜藤·三·21>
 골<谷> 골+양>고랑
 고랫 피사리라(谷響) <榜敵·八·55>
 들(溝) 들+양>도랑
 들구(溝) 들거(渠) <類合·上·18>
 말(場) 말+양>마당
 마뽕 나오매(築場) <杜藤·七·18>
 벌(崖) 벌+양>벼랑
 벌해 바른 밧 다호라 <索學·動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名詞 語幹에 接尾辭를 連結하여 새 名詞形語幹을 形成하는 造語法으로 이같은 現象은 中世語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大概의 塊遇 單音節語 名詞에 添加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이 韓國語에서는 大體的으로 名詞形 語彙에 接尾辭 ‘-ㅁ’을 添加해서 發展한 一連의 語彙들이 많다. 特別히 本島方言에 있어서 이 ‘-ㅁ’ 添尾는 한층 두드러진 現象으로 語幹 또는 語尾等に ‘-ㅁ’이 接尾되는 일이 많은데 다음에 그 語例를 提示하여 본다.

1)-ㅁ:

- 남(나무), 팡(며), 팡(지게 따위를 받치는 물), 데양(데야), 바당(바다),
 동치(도미), 마농(마늘), 바농(바늘), 일삼귀(일사귀), 냥마리(숯통걸),
 봉알(불알)

2)-aŋ:

- 고장(꽃), 아방(아버지), 나방(나비), 고평(구멍)

3)-eŋ:

- 어멍(어머니), 그시멍(꼬으름), 트멍(름)

9) 李崇寧, 「國語造語論巧」,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P.36-88.

4)-uŋ:

지둥(기둥), 지붕

5)-oŋ: 지둥(기둥)

以上 語例에서 볼 때 本島方言에서는 이 ‘-ŋ’ 接尾가 얼마나 甚한가를 알 수가 있다..

語例 1)에서는 낭(나무), 바당(바다)과 같이 ‘-ŋ’ 接尾辭가 語幹에 直結하는 境遇이니 이때 語幹末이 母音으로 끝날 때는 그 語幹에 ‘-ŋ’이 바로 添尾된다.

대야+o>대양, 바다+o>바당

그리고 語幹末이 子音으로 끝났을 때 即 받침이 있을 때는 語幹末子音을 脱落시키면서 이 ‘-ŋ’이 添尾된다.

뚝>뚝치, 마늘>마농, 바늘>바농

以上은 接尾辭 ‘-ŋ’이 語根과 直結하는 境遇이나 一般的으로 이 ‘-ŋ’ 接尾辭는 語根과의 統合에서 母音이 先行된다. 即 語根에 ‘-ŋ’이 直結하지 않는 것이니 語例 2)3)4)5)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때 添入되는 接尾辭의 母音의 變種은 -a-, -ə-, -o-, -u- 등 네가지가 나타나 그中 特히 -a-, -ə- 兩種이 優勢하다. 이것은 大概 母音調和의 影響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添入되는 母音의 機能은 大体로 두가지 側面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音韻論적으로 보아 語幹末이 子音으로 끝나게되면 接尾辭 ‘-ŋ’과의 連結에서 子音衝突이 일어나게 되니 이를 防止하기 爲해서, 即 一種의 調聲母音이 添入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이母音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造語論的 觀點에서이니 語彙가 單音節形인 境遇에는 母音을 더 添加 시킴으로써 語形 伸張을 遂行하여, 語形上 意味上的 安定을 圖謀하려는 策이라고 생각된다. 接尾辭가 붙고 또는 複合語를 이루는 大多數의 語例가 語形을 補強하려는 努力의 結果로 볼것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는 많은 語彙의 語形變化의 通時的 考察에서 볼 때 首肯이 가는 것이다.

압(父)+아+o>아방(아버지)

엄(母)+어+o>어멍(어머니)

꽃(花)+아+o>고장(꽃)

그리고 ‘가쟁이’의 構成은 ‘갓(枝)+아+o+이>가장이>가쟁이’로 보겠는데, 여기서 ‘가쟁이’는 接尾辭 ‘앙’이 ‘앵’으로 即 ‘ㅈ’母音이 ‘ㅊ’母音으로 變해서 된 것이다. 그러면 그 原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갓+앙+이>가장이’와 같이 一次接尾辭 ‘앙’에 다시 二次接尾辭 ‘이’가 添尾되어 ‘앙이’와 같은 複合形態를 이루는데 일단 ‘앙이’形이 形成되

면 그 後統接尾辭인 ‘ㅣ’ 母音의 影響을 받아 umlaut 現象이 일어나서 ‘-aŋi’가 ‘-eŋi’로 되어 母音의 變動을 가져 온 것이다. 이 umlaut 現象은 本島方言의 한 特色으로서 語形變動의 한 原因을 內包하고 있는데, -aŋi:-eŋi / -eŋi:-eŋi 의 共存形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가쟁이(枝), 버쟁이(虫), 이쟁이(類) …… 등과 같이 umlaut 化된 語形이 一般的으로 優勢하다.

以上에서 考察하여 본 바로 本島方言 ‘가쟁이’ 語의 一次接尾辭 ‘eŋ’의 基本은 ‘-ŋ’으로서 이것은 ‘R+ŋ’形 即 낭(木), 고장(花), 팡(骨) …… 등과 같이 第一次語幹에 -ŋ을 添加하여 第二次語幹 形成을 한 것인데, 이것은 現代 韓國語의 한 造語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現代 韓國語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通時的으로 볼 때, 中世國語에서도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造語方式에 있어 한 두드러진 事實임은 前述한 바이나, 本島方言에 있어서 이와 같은 現象은 特히 顯著하여 豊富한 資料와 多樣한 變形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또 이 ‘R+ŋ’의 語幹形成의 方式은 古代 土耳其語와 共通된 現象으로 알려져 있어, 特히 本島方言에 이와 같은 現象이 두드러짐은 決코 偶然이 아닐 것이며, 이것은 本島方言에 言語의 底層이 아직도 保存 維持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서 國語史的으로도 매우 큰 意味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IV. 二次接尾辭 /-i/

‘kadzeŋi’는 前述한 바 接尾辭 ‘-ŋ’에 다시 二次的으로 後統接尾辭 ‘-i’가 接尾되어 複合形態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i’는 所謂 名詞派生接尾辭로 韓國語 語幹 形成에 있어 i接尾 派生法은 가장 두드러진 造語方式의 하나로서 그 形成 過程을 우선 通時的 文脈에서 追跡하여 그 機能의 一面을 살펴 보며, 그리고 이러한 現象이 本島方言에 共時的으로 分化되어 있는 樣態를 그 言語의 歷史的 變化의 結果로 把握하여 보려고 한다.

中世國語에서 接尾辭 -i에 依한 派生名詞에는 두 種類가 存在한다. 即 名詞에서 派生된 것과 動作名詞 語幹에서 派生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의 論議 對象은 名詞語幹에 接尾하여 派生名詞를 形成하는 接尾辭 -i에 限하기로 한다.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名詞語幹에 名詞派生接尾辭 -i가 添加되어 그 語形이 結果的으로 擴大된 例들이 자주 나타난다.

물>꾸리(鱷), 그럭>그러기(願), 낫>낫시(釣), 굵병>굵병이(竈 爐), 고슴돌>고슴도치(鱗), 부렁>부렁이(鰻 鱔), 꽃골>꽃고리(鶯), 암>아비(父), 잣>가져(枝)

이러한 ‘-이’는 본質적으로 名詞의 曲用에 쓰인 主格形이었음은 이미 學界의 異論이 없는 事實로서 따라서 該名詞의 原形은 이 ‘-이’를 除去한 部分임은 이미 前述한 바이다.

이에 對해서 許雄教授는¹⁰⁾ ‘폴(蠶) > 프리 낚(釣) > 낚시’와 같이, 우리말에는 /-이 /音이 名詞에 接尾하여 말이 길어지는 일이 흔히 있음을 指摘하고, ‘폴’(蠶) > ‘프리’ 項目에서 이것은 「프리(主格形), 프리라(指定詞 連結形)」와 같은 統合이 자주 나타난 結果, 새로 말을 배우는 兒童들은 이것을 「폴-이, 폴-이라」와 같이 分析하여 듣지 않고, 「다리(主格形), 다리+라」形에 類推하여, 「프리(主格助詞縮約, 프리+이 →프리), 프리-라」와 같이 잘못 分析한 탓으로 보았다.

金亨奎博士도 國語에서 語彙의 長形化 現象으로 이러한 例들이 많음을 指摘하고 “또 「訓民正音解例」를 보면

폴 為蠶. 낚 為釣. 부형 為鵲鵲. 금방 為蟻蟻. 두딤 為蟻蟻. 그력 為雁. 사슴 為鹿. 울창 為網射.

들의 例가 있으나, 現在 우리 말은 여기에 主格토 「이」母音이 붙어서 된 것이 분명하다¹¹⁾고 하였다.

또 梁柱東博士도 앞에서 든 바와 같이 所謂 ‘|尾名詞’라고 하여 語根에 主格助詞 ‘이’가 結合 密着되어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¹²⁾

이와 같이 接尾辭가 語根과 結合 統合을 이루는 것은 卽 이것이 不安定한 短音節 名詞에 添加된 後로 後代에 主格形이 單獨形의 名詞로 굳어져 語形의 安定과 補強을 圖謀하려는 努力의 結果로 볼 것이며, 아울러 여기에 同音語를 回避하여 語義分化를 示圖하게 하는 意味論的 要因이 適用한 結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中世國語에서 어느 程度 찾아 볼 수 있으며, 前期 中世國語 資料인 「鷄林類事」에서도 이와 類似한 것 같은 Variants가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中世國語 以前부터 始作되는 傾向으로 보인다.

松日 蘇子南
葉日 葉南木
木日 南記

10) 許雄, 「國語音韻學」, (서울: 正音社, 1968), P.519.

11) 金亨奎, 「國語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4), P.87.

12) 梁柱東, Op.cit., PP.249-250.

여기서 ‘南’은 ‘남’, ‘南木’는 ‘나모’, ‘南記’는 ‘남기’ 程度의 近似值가 될 것이다. ‘南’ (남)은 語根形일 것이며 ‘南記’는 語根 ‘남’에 主格助詞 ‘-이’가 接尾된 形態 即 ‘남기(남이)’의 表記로 推定되거나와 이른바 特殊曲用的 變化形 ‘남’이 記述됨은 매우 重要的 資料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名詞語幹에 붙는 接尾辭 ‘-i’는 中世國語에서 하나의 傾向으로 出發했으며, 이러한 傾向이 方言으로 波及되어 갔음을 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 現代 中央語에서는 몇몇 例만 除外하고 大幅的으로 縮少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即 現代國語에서 大體로 中部方言을 除外한 南部와 北部方言群에서 名詞의 語幹에 接尾辭 ‘-i’가 添尾되어 派生된 名詞들의 variations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여러 方言資料集에서 추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中世國語에서의 名詞派生接尾辭 ‘-i’의 普遍화된 한 反射形들이라 推定된다. 왜냐하면 歷史的 次元은 共時的으로 方言의 分化라는 다른 次元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確認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本島方言에 있어서도 語幹에 接尾辭 ‘-i’가 接尾하여 派生名詞를 形成하는 現象을 方言 資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미 (새, 衆)	생이 (새, 鳥)	중이, 쉼이 (쥐, 鼠)
뻬이 (뻬)	쟁이, 갱이 (게, 蟹)	조쟁이 (조개, 貝)
지뻬이 (지뻬)		

위의 方言 語例들은 中世國語에서의 名詞派生接尾辭 ‘-i’의 普遍화된 한 反射形들이라 推定된다. 이것들은 元來 名詞의 曲用に 使用된 主格形들로서 單獨形으로 굳어진 結果라고 一般的으로 說明되고 있다. 그리고 本島方言 現象에서 볼 때 이 現象은 接尾辭 (-i)를 接尾시켜 語形 伸張을 圖謀하려는 意圖에서 形成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即 위 方言 語例에서 ‘새, 게, 뻬 …’ 등의 語辭들은 語幹末母音의 性格으로 보아 中世文法에서 主格助詞인 ‘i’母音은 省略되는 것이 原則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여기 ‘-i’母音은 單純히 語形 伸張을 期하기 爲해서 接尾된 接尾辭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들 語幹에 ‘-i’接尾辭가 結合하게 되면 ‘새이, 게이, 뻬이 …’ 등과 같이 母音衝突이 일어나게 되니 이 母音衝突回避現象으로 語幹과 接尾辭 사이에 子音 ‘j’을 介入시켜 形成된 것이 바로 위의 方言 語形들일 것이다.

本島方言 現象에서 名詞派生接尾辭 ‘-i’의 接尾 現象은 大體로 中部方言에 比해서 顯著하다하겠으나 그 反面 現代 共通語形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即 名詞派生接尾辭 ‘-i’가 接尾되기 以前の 15世紀 言語의 古形態도 同時에 維持되고 있음이 本島方言의 特異한 點이라 할 것이다.

現代 國語에서 ‘남시 (釣)’는 15世紀 文獻 ‘訓民正音解例’ 등에서 ‘남爲釣’로 表記되고 있어 單音節語形이 分明한데 現代語形 ‘남시’는 이 語幹 ‘남’에 接尾辭 ‘-이’가 接尾 結合되어 굳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本島方言에 있어서도 勿論 單獨形으로는 共通語形

과 같은 ‘납시’로 實現되지는 않는 複合語形을 이룰 때는 ‘주납’ (줄납시) 등과 같이 單音節語形으로 實現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15世紀 語形 ‘납’과 全然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現代 國語에서 ‘獵’을 ‘잔나비’라고 하나 文獻에서 찾아 보면

납 爲獵 <訓正解例·用字例>

조던 납 무러시늬 <月歌·7·5>

납과 새와 잇는 즘 큰 비배 조던니 <杜特·21·19>

납원:獵. 납호:湖 <訓蒙·上·18>

항물며 무덤우히 잔나비 꾀람 붙게 귀우춘돌 엇더리 <松江·將進酒辭>

등과 같이 이 語辭는 單音節形인 ‘납’이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여기에 接頭語 ‘진’과 接尾語 ‘이’가 添加된 것이 ‘진나비’일 것이며, 이것이 變하여 된 것이 現代語形 ‘잔나비’일 것이다.

그런데 本島方言에서 보면 15世紀 文獻語形인 ‘납’의 語例가 아직도 殘存하여 있음을 볼 수 있으니, 그 頻度가 極히 적기는하나 原語民間의 談話에서는 아직도 實現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島에서는 十二支에 依한 사람의 呼稱에서 所謂 ‘잔나비며’ (申生)를 ‘납헛치’라고 하니 이 말은 申年에 出生한 사람을 稱함이다. 이 말에서 ‘납’은 分明 名詞派生接尾辭 ‘-i’가 接尾分裂되기 以前 即 15世紀 文獻語形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 魚名에서 보면 ‘도미’ (鯛)를 本島方言에서는 ‘돔, 돔바리, 돔치’ 등으로 實現되는 데 여기서 이들 語辭의 語根은 ‘돔’이고 여기에 接尾辭 ‘바리’, ‘치’가 接尾 結合되어 形成된 것이 ‘돔바리, 돔치’일 것이다.

現代 共通語 ‘도미’의 形成도 비록 文獻의 傍証資料를 찾아 볼 수는 없으나, 言語變遷의 歷史的 事實로나, 本島方言 現象으로 미루어 보아 그 原語根은 單音節인 ‘돔’일 것이며, 여기에 接尾辭 ‘-이’가 接尾 結合하여 派生 發達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本島方言에서는 現代 中央語보다는 오히려 保守的인 一面을 지니고 있어 名詞派生接尾辭 ‘-i’의 接尾 現象에 있어서도 部分的이기는 하나 分裂 以前의 古形態가 維持되고 있음이 特異한 點이라 할 것이다.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現代國語에서 所謂 ‘-i尾名詞’는 語根에 名詞派生接尾辭 ‘-i’가 接尾 結合되어서 된 것으로 이것들은 原來 名詞의 曲用에 使用된 主格形들로서 單獨形으로 굳어진 結果라고 一般的으로 說明되고 있다. 이것은 基底形의 變化를 가리키는 再語彙化(relexicalization)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即 ‘名詞語幹+接尾辭-i’의 形態 構造를 새로운 世代의 言語 習得者들은 여기에 關与하는 形態論的 過程을 구태어 理解함이 없이 그대로 그들 文法에

서 基底形으로 取하게 된 結果로서 形成된 것이다.

이와 같이 名詞派生接尾辭 -i는 中世國語 또는 그 以前의 時期에 隨意的인 條件 밑에서 出發되었으나, 이러한 傾向이 地域으로 派及됨에 따라서 適用 範圍를 넓히고 現在의 方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獨立된 語形으로 確立된 것이다. 따라서 現代 方言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語形들은 歷史性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의 方言의 現象이 中央語에 侵透됨으로써 나타났을 可能性도 全然 排除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口蓋音化現象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部方言에서 이 現象은 일찍이 發端되어 北上하여 中央語에까지 波及 그 影響을 미친 境遇와 같지 않을까도 생각되니, 이 接尾辭 ‘-i’의 接尾 現象도 前述한 바와 같이 現代 南部方言에서 크게 擴大되어 優勢하게 나타나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서 이 現象도 일찍이 南部方言에서 發端되어 中央語에까지 波及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닐까도 推定된다.

本島方言에 있어서 口蓋音化現象은 特히 顯著한 바 있어 南部方言圈에 屬한 다 할 것이며, 또 名詞派生接尾辭 ‘-i’의 接尾現象에 있어서도 大體的으로 南部方言群과 그 軌를 같이 한다고 볼 것이나 다만 部分的으로나마 分裂되기 以前의 15世紀 古形態가 아직도 維持되고 있어 古語圈에 屬하면서도 特殊한 方言을 가지고 있는 點이 陸地部 諸 方言에 比해서 特異한 點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本島가 孤立된 絶海孤島라는 地理的 歷史的 特殊 環境에 緣由됨이라고 생각된다.

V. 結 語

以上 叙述한 散漫한 說明을 要約하여 畧으로써 結語로 삼고자 한다.

濟州島方言에 나타나는 接尾辭의 形態分析은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完全한 資料目錄을 가지고 있지 않은 現段階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本稿에서는 本島方言 語彙 ‘가쟁이’ (枝)의 形態分析을 하여 그 語根을 抽出하여 내고, 또 이에 添尾된 派生接尾辭의 形態를 分析 考察하여 그가 갖는 共時的 通時的 意義와 그 特徵에 대하여 窺視하여 보았다.

‘Kadzɛpi’는 語根 ‘kac’에 接尾辭 ‘-ɛʷ’과 ‘-i’의 複合形態素가 添尾된 것이며, ‘-ɛʷ’은 ‘i’ 母音의 影響에 依한 umlaut 現象에 依하여 ‘-ɛʷ’으로 變換한 것이다.

‘kadzɛpi’의 形態分析에서 語根을 ‘kac’으로 抽出하여 낼 수 있으니, 現在는 自立性이 없는 것들이나 이는 語源의 自立性이 認定되는 即 語源의 語根이다. 現代語形 ‘가지’는 이 ‘갓’에서 派生한 第二次的 派生發達語根이며 ‘갓’形은 文獻의 記錄을 따라 15世紀까지 溯及하여 올라 갈 수가 있으니 이것은 分裂되기 以前의 15世紀 當時 言語의 底層이 本島方言에 아직

도 維持되고 있음을 示顯하여 주는 것으로 볼 것이다.

‘kadzeŋi’의 一次接尾辭 ‘eŋ’의 根本은 ‘-ŋ’이며 이것은 ‘R+ŋ’型的 造語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나 特히 本島方言에서는 이 ‘-ŋ’接尾가 尤甚하여 豊富한 資料와 多様な 變形을 나타낸다.

이 接尾辭 ‘-ŋ’은 語根과의 統合에서 語根에 直結되기도하나 母音이 先行되는 境遇가 많다. 이때 添入되는 母音의 變種은 -a-, -ə-, -o-, -u- 등이 있으나 一般的으로 -a-, -ə- 兩母音이 優勢하다. 또 이 添入되는 母音의 機能은 大体로 關聲母音의 役割과 또 語形伸張을 遂行하여 語形을 補強하고 語意를 強化하려는 意味論的 努力의 結果로 볼 것이다.

‘R+ŋ’의 語幹形成 方式은 古代 土耳其語와 共通된 現象으로 알려져 있는데, 特히 本島方言에 이와 같은 現象이 두드러짐은 決코 偶然이 아닐 것이니 比較的 觀點에서 보아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二次接尾辭 ‘-i’는 名詞派生 接尾辭로 韓國語 語幹 形成에 있어 i接尾 派生法은 가장 두드러진 造語方式의 하나로 通時的으로 보아 中世國語 以前부터 始作되어 온 것으로 推定되며, 이 ‘-i’는 本質的으로 名詞의 曲用に 쓰인 主格形이었음은 學界의 異論이 없는 바다.

現代國語에서는 南部方言群에 이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中世國語에서의 名詞派生接尾辭 ‘-i’의 普遍화된 한 反射形들이라 推定되나 한편으로 이 現象은 오히려 南部地方에서 먼저 發生하여 中部方言群에까지 그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닐가도 推測된다.

本島方言에 있어서는 大體的으로 南部方言圈에 屬한다고 할 것이나 部分的으로나마 分裂되기 以前의 古形態가 維持되고 있음이 特異하다.

— Summary —

A Study on the Word, 'Kadʒɛŋi' spoken in the Dialects of Jeju-Do

Kim, Hong Sik

- 1) One word spoken in the dialects of Jeju-Do, 'Kadʒɛŋ i' is composed of the stem, 'Kac' plus the compound morpheme with the suffix '-aŋ' and 'i'. The suffix '-aŋ' changes into '-ɛŋ' with the umlaut caused by the vowel i.
- 2) The stem 'Kac' is not autonomous but etymologically is. It is the etymological stem. The modern form, 'Kadʒi' is derived from the stem 'Kac'. It is the secondary derived stem. The examination of the stem 'Kac' in the dialects of Jeju-Do makes us that the dialects have the old form of the 15th century, when it's not divided into the low level of language.
- 3) The basic form of the first suffix 'ɛŋ' is '- ɳ '. This word is made in the way of combining 'R+ ɳ '. The [- ɳ] suffixing phenomenon very often occurs in the dialects of Jeju-Do and provides us much materials and various variants.

This word-making method is also extremely common in the old Turkish language, especially in the dialects of Jeju-Do the phenomenon frequently occurs. Thus, the word-making method has very important meaning even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 4) The vowel 'i' is the suffix derived from the noun. The derivation with the suffix i is the commonest word-making method. This process maybe began before the middle Korean.

The phenomena occurred in the dialects of Jeju-Do is similar to that of the mid dialects as a whole. It is unique that the low level of the 15th century language is still preserved partially.